

公式(2)로는: $q \quad (1T \leftrightarrow 2T) \quad (\leftrightarrow) \quad q \quad (2T \leftrightarrow 1T) \Rightarrow$ (表記上으로 1(먼저)에 力點을 두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) $q \quad (1T \leftrightarrow 2T)$, 즉: $\phi \quad (1MARCH \leftrightarrow 2MARCH) \quad (\leftrightarrow)$
 $1(먼저) \quad 1(나중) \quad 2(나중) \quad 2(먼저) \quad 2(나중) \quad 1(나중)$
 $1(먼저) \quad 1(나중) \quad 2(나중)$
 AI $(2MARCH \leftrightarrow 1MARCH) \Rightarrow$ (表記上으로 1(먼저)에 力點을 두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)
 $2(먼저) \quad 2(나중) \quad 1(나중)$
 AI $(1EU MARCH \leftrightarrow 2EU MARCH)$
 $1(먼저) \quad 1(나중) \quad 2(나중)$

*이 {並置}적 位置의 특징은, 앞에 설명한 1(먼저) 位置/2(먼저) 位置(=相互拒否적 共存位置)와, 다 같이, (나중) 位置와 분명히 구별(=分析)되는 1(먼저) 位置/2(먼저) 位置(=나중) 位置가 아닌 1(먼저) 位置/2(먼저) 位置에 力點(=強調)을 둔, 그것과 (나중) 位置와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라는 점에서, 그 특징을 함께 한다.

위에서 比較한 바를 각각 다시 그림으로 대조시키면 아래와 같다:

○ G.식(어휘 위주의) 表記=脫전통 表記(*주의: 아래그림 맨 밑의 (←)는 (↔)의 誤植임)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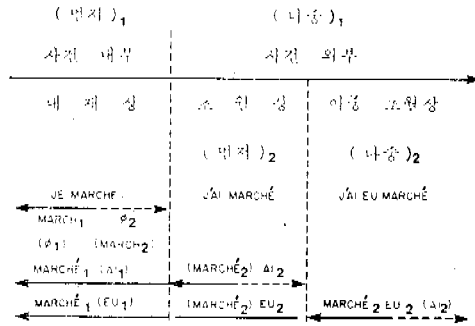


그림 3

○ 초월적(형태 위주의) 表記=脫전통 表記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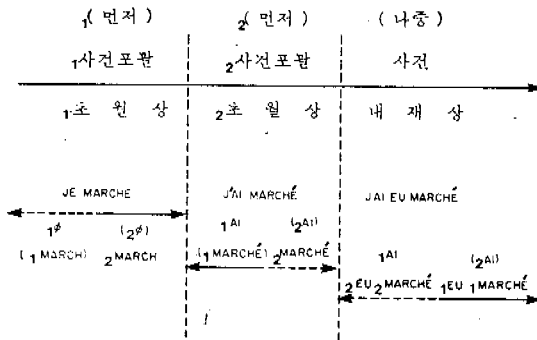


그림 4

이어서 위 두 脫전통 表記와 구별되는 統辭言語學式 表記를 위의 예에 따라서 요약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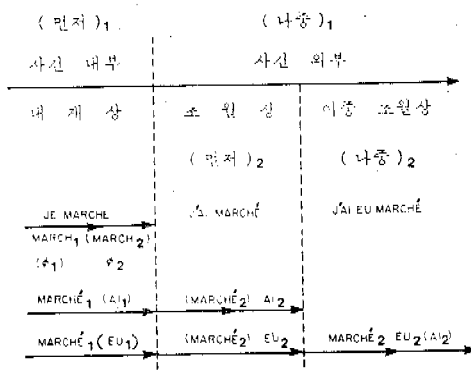


그림 5

○ 먼저(1) 位置 :

實線(→=어휘 : MARCH)과 點線(→=형태 : φ)의, 等方向적 共存位置(→MARCHÉ) : *언제나 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=實線(→ : MARCH)에 力點(=強調)을 두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함.

○ 公式 1 :

$$\begin{aligned} & (T_1+q_1)_1 + (T_2+q_2)_2 \\ & (\rightarrow_1+\dots)_1 + (\rightarrow_2+\dots)_2 \\ & (\text{MARCH}_1+\phi_1)_1 + (\text{MARCH}_2+\phi_2)_2 \\ & \text{어휘 (=力點位置)} \quad \text{형태 (=非力點位置)} \end{aligned}$$

○ 公式 2 :

$$\begin{aligned} & \underline{T} \quad (\underline{q_1 \rightarrow q_2}) \\ & (\underline{\rightarrow}) \quad (\underline{\dots_1 (\rightarrow) \dots_2}) \\ & \underline{\text{MARCH}} \quad (\underline{-\phi_1 \rightarrow \phi_2}) \\ & \text{어휘} \quad \text{형태} \\ & (\text{力點位置}) \quad (\text{非力點位置}) \end{aligned}$$

○ 먼저(2) 位置 :

實線(→=어휘 : MARCHÉ)과 點線(→=형태 : AI)과의 等方向적 共存位置(→ : MARCHÉ → : AI) : *언제나 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=實線(→MARCHÉ)에 力點(=強調)을 두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함.

○ 公式 1 :

$$\begin{aligned} & (T_1+q_1)_1 + (T_2+q_2)_2 \\ & (\rightarrow_1+\dots)_1 + (\rightarrow_2+\dots)_2 \\ & (\text{MARCHÉ}_1+AI_1)_1 + (\text{MARCHÉ}_2+AI_2)_2 \\ & \text{어휘 (=力點位置)} \quad \text{형태 (=非力點位置)} \end{aligned}$$

○ 公式 2 :

$$\begin{aligned} & \underline{T} \quad (\underline{q_1 \rightarrow q_2}) \\ & (\underline{\rightarrow}) \quad (\underline{\dots_1 (\rightarrow) \dots_2}) \\ & \underline{\text{MARCHÉ}} \quad (\underline{AI_1 \rightarrow AI_2}) \\ & \text{어휘} \quad \text{형태} \\ & (\text{力點位置}) \quad (\text{非力點位置}) \end{aligned}$$

*언제나 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(→ : MARCH, MARCHÉ)에 力點(=強調)을 두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, 어휘(→ : MARCH, MARCHÉ)와 형태(→ : φ, AI)가 선명하게 구분(=分析)되지 않고, 따라서, 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(→ : MARCH, MARCHÉ)와 그 量적 어휘(→ : MARCH, MARCHÉ)에 뒤섞인 역시 量적 개념으로서의 형태(→ : φ, AI)의, 量적 개념으로서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: →→=→ : →MARCHÉ, →MARCHÉ→AI) 하나 만이 있음. 즉 이 전통언어학적 表記는, 한편으로는 脫 전통 언어학적 G.식(어휘 위주의) 表記와, 다 같이 어휘를 위주로 하면서도, 어휘와 형태가, (먼저)₁/(먼저)₂ 位置에서,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(먼저₁=← : MARCHÉ/먼저₂=← : MARCHÉ ←→ : AI)를 이루느냐 等方向적 共存位置(먼저₁=→ : MARCHÉ/먼저₂=→ : MARCHÉ → : AI)를 이루느냐라는 근본적인 대립을 나타내며, 다른 한편으로는, G.식(어휘 위주의) 表記를 조일한(형태 위주의) 表記와, 어휘 위주의 관점을 완전히 달피한 형태 위주의 관점에서, 어휘와 형태가, 먼저₁/먼저₂ 位置에서,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(먼저₁=→ : φ → : MARCH/먼저₂=← : AI → : MARCHÉ)를 이

루느냐 아니던 순전히 어휘 위주의 관점에서 위 位置에서 等方向적 共存位置(먼저₁→ : MARCHE/먼저₂← : AI↔ : MARCHÉ)를 이루느냐라는 근본적인 대립을 나타낸다.

즉 다시 말하면, 전통언어학적 表記와 G식 表記의 공통점은, 전통언어학적 表記와 초월적 表記(=G.식 量적/어휘 위주의 表記를 分析 내지 초월/탈피한 質적/형태 위주의 表記) 사이의 전면적인 대립과는 달리,

1) (G.식 表記의 경우) : (먼저)₁ 位置에서의 어휘(← : MARCH)와 형태(↔ : ϕ)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(↔ : MARCHE)와 그와 異(逆)方向的 (먼저)₂ 位置에서의 어휘(← : MARCHÉ)와 형태(↔ : AI)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(=먼저₁ : ←↔MARCH/먼저₂ : ←MARCHÉ↔AI)가, 그 並置적 共存位置, 즉 (나중)₂ 位置에서의 어휘(←MARCHÉ←EU)와 형태(↔AI)의 異(逆)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(←MARCHÉ←EU↔AI)와 선명하게 구별(=分析)되지 않고, 즉 둘로 갈라져서(=分析되어서) 相互拒否적으로 共存(1먼저 : ←ϕ→MARCH/2먼저 : ←AI↔MARCHÉ)하지 않고(*앞 p.189의 G식 表記와 초월적 表記의 比較項참조), 어휘(←MARCHÉ←EU)와 형태(↔AI)의 並置적(=어휘적=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(←MARCHÉ←EU)에 力點/強調를 둔) 共存位置(←MARCHÉ←EU↔AI), 즉 G.식 表記의 (나중)₂ 位置(*앞 p.189 참조)의 테두리 안에서의, 그것(=나중₂ 位置 : ←MARCHÉ←EU↔AI)과, (먼저)₁ 位置와 (먼저)₂ 位置의 相互拒否적(형태적=형태(=먼저₂)(←MARCHÉ↔AI)에 力點/強調를 둔) 共存位置(먼저₁ : ←MARCH↔ϕ/먼저₂ : ←MARCHÉ↔AI) 하나만이 있음.

2) (전통언어학적 表記의 경우) : (먼저)₁ 位置에서의 어휘(→ : MARCH)와 형태(↔ : ϕ)의 等方向적 共存位置(→ : MARCHE)와 그와 等方向的 (먼저)₂ 位置에서의 어휘(→ : MARCHÉ)와 형태(↔ : AI)의 等方向적 共存位置(=먼저₁ : →MARCH/먼저₂ : →MARCHÉ→AI)가, 그 並置적 共存位置, 즉 (나중)₂ 位置에서의 어휘(→MARCHÉ→EU)와 형태(↔AI)의 等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(→MARCH→EU→AI)와 선명하게 구별(=分析)되지 않고, 즉 둘로 갈라져서(=分析되어서) 相互拒否적으로 共存(1먼저 : ←ϕ→MARCH/먼저₂←AI↔MARCHÉ)하지 않고(*앞 p.189의 G식 表記와 초월적 表記의 比較項 참조), 어휘(→MARCHÉ→EU)와 형태(→AI)의 等方向적 並置적(=어휘적=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(→MARCHÉ→EU)에 力點/強調를 둔) 共存位置(→MARCHÉ→EU→AI), 즉 G.식 表記의 (나중)₂ 位置(*앞 p.189 참조)의 테두리 안에서의, 그것(=나중₂ 位置 : →MARCHÉ→EU→AI)과, (먼저)₁ 位置와 (먼저)₂ 位置의 等方向적 相互拒否적(=형태적=형태(=먼저₂)(→MARCHÉ→AI)에 力點/強調를 둔) 共存位置(먼저₁ : →MARCH+ϕ=MARCHE/먼저₂ : →MARCHÉ→AI) 하나만이 있음.

위 (1) (G.식 表記의 경우)와 (2) (전통언어학적 表記의 경우)의 공통점, 즉 두 表記가 모두, 어휘와 형태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의 表記/어휘와 형태의 等方向적 共存位置의 表記, 라는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, 量적 어휘에 力點(強調)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, 다음의 (3) (초월적 表記의 경우)는, 오직 형태에 力點(=強調)을 둔 형태와 어휘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의 表記라는 점에서, 위 (1)/(2)의 表記와 완전히 구별된다. 즉 :

(3) (초월적 表記의 경우) : 1(먼저) 位置에서의 형태(↔ϕ)와 어휘(→MARCH)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(↔→MARCHE)와 그와 異(逆)方向的 2(먼저) 位置에서의 형태(←AI)와 어휘(↔MARCHÉ)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(=1먼저 : ↔→MARCH/2먼저 : ←AI↔MARCHÉ)가, 그 並置적 共存位置, 즉 (나중) 位置에서의 형태(↔AI)와 어휘(→EU MARCHÉ)의 異(逆)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(↔AI→EU MARCHÉ)와 선명하게 구별(=分析)되고, 즉 둘로 갈라져서(=分析되어서) 相互拒否적으로 共存(1먼저 : ←ϕ→MARCH/2먼저 : ←AI↔MARCHÉ) 하고 (*바로 위의 (1) (G.식 表記의 경우)/(2) (전통언어학적 表記의 경우) 참조), 따라서, 형태(=1먼저 : ↔ϕ→MARCH)와 어휘(=2먼저 : ←AI↔MARCHÉ)의 異(逆)方向적 相互拒否적(=형태적=質적 개념으로서의 형태(=1먼저 : ↔ϕ

→MARCH)에 力點/強調를 둔 共存位置(=1먼저 : ←→MARCHE/2먼저 : ←AI→MARCHÉ), 즉 앞의 (1) (G.식 表記의 경우)나 (2) (전통언어학식 表記의 경우)에서의 (나중)₂ 位置와는 분명하게 구별 (=分析)되는 1(먼저)/2(먼저) 位置의 테두리 안에서의, 그것(=1먼저/2먼저 位置⇒1먼저 : ←→MARCHE/2먼저 : ←AI→MARCHÉ)과, (나중) 位置 즉 並置쳐 位置(=←AI→EU MARCHÉ)가 둘로 갈라져서(=分析되어서) 있음.

위 1) 전통언어학식(어휘 위주의) 어휘와 형태의 等方向적 共存位置의 表記, 2) G.식 脫 전통언어학식(어휘 위주의) 어휘와 형태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의 表記를, 그 (어휘 위주)라는 共通點 때문에 한 묶음으로 하고, 그 (형태 위주)라는 특성 때문에, 1) 및 2)와 완전히 구별되는 3) 초월적·脫 전통언어학식(형태 위주의) 형태와 어휘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의 表記와 1)/2)表記와의 比較

이것을 이미 나온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:

1) 전통언어학식(어휘 위주의) 어휘와 형태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表記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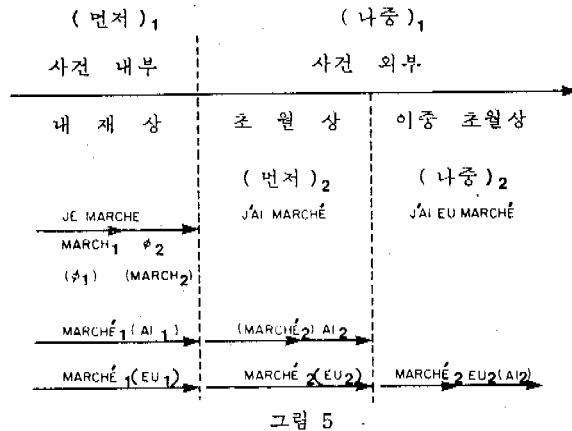


그림 5

2) G.식·脫 전통언어학식(어휘 위주의) 어휘와 형태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 表記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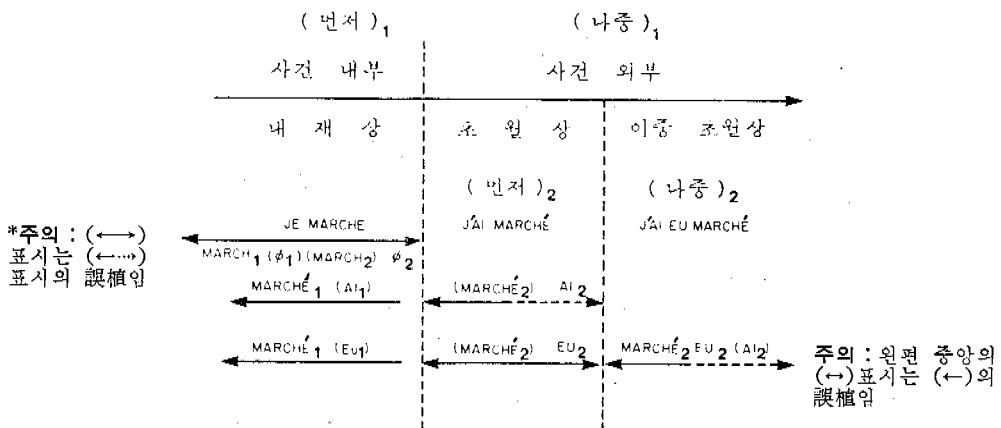


그림 3

3) 초월적·脫 전통언어학식(형태 위주의) 형태와 어휘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 表記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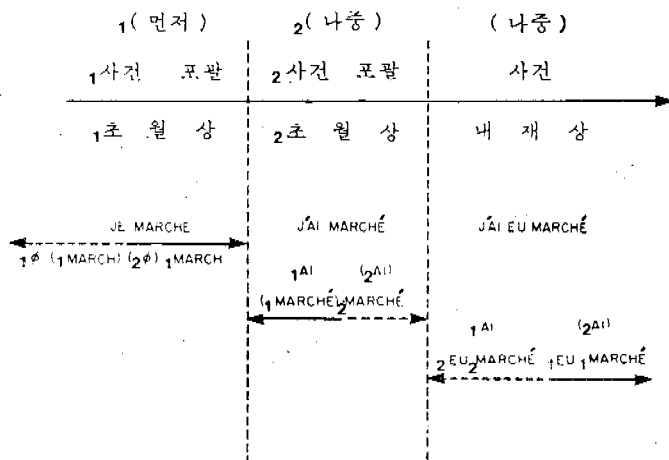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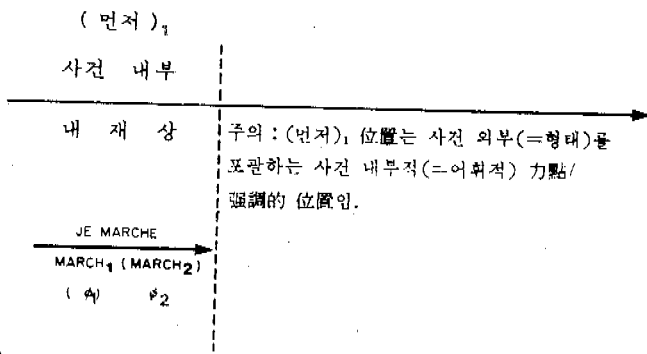
그림 4

2) G.식 表記와 3) 초월적 表記의 比較는 이미 앞(*앞: p.189 참조)에서 하였으므로, 1) 전통언어학식 表記만을 아래에 앞서의 예에 따라서, (먼저)₁/(먼저)₂ 位置와 (나중)₂ 位置로 나누어 표시한다:

1) 전통언어학식(어휘 위주의) 어휘와 형태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表記에 있어서의 (먼저)₁/(먼저)₂ 位置:

(먼저)₁ 位置(JE MARCHÉ)에서의 어휘(→: MARCH)와 형태(→: φ)의 等方向적 共存位置(→: MARCH+φ)와 그와 等方向的 (먼저)₂ 位置(AI MARCHÉ)에서의 어휘(→: MARCHÉ)와 형태(→: AI)는, (나중)₂ 位置(→→→: MARCHÉ+EU+AI)의 테두리 안에서의 等方向적 相互拒否적 共存位置(→: MARCH+φ/→→→: MARCHÉ+AI)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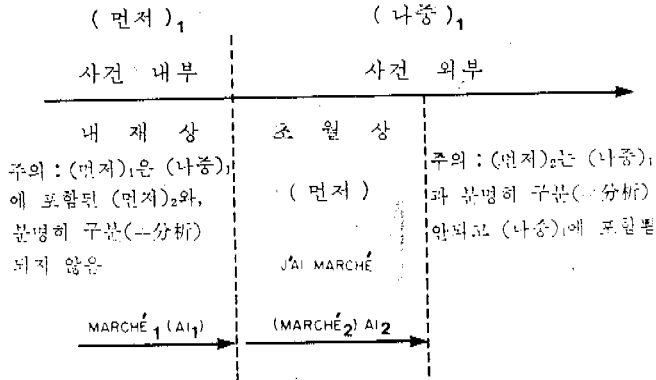
이것을 (먼저)₁과 (먼저)₂ 位置로 나누어서, 그림으로 표시하고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:



* (먼저)₁ 位置:

(먼저)₁(=사건 내부=어휘₁=T₁→: MARCH-)에 力點(強調)을 둔, 그것(=T₁)과 그것(=T₁)

의 내부적 형태(\rightarrow : MARCH(ϕ)= q_1) 및 외부적 형태(\rightarrow : (MARCH) ϕ = q_2)와의, 等方向적 共存位置: 公式(1)로는 $(T_1+q_1)_1+(T_2+q_2)_2$, 公式(2)로는 $T(q_1 \rightarrow q_2)$, 즉 $(\text{MARCH}_1+\phi_1)_1+(\text{MARCH}_2+\phi_2)_2$, MARCH($\phi_1 \rightarrow \phi_2$)로 表記 가능한 共存位置(*앞 pp.188-189의 公式(1)/公式(2)項 참조)(*주의: 아래 그림의 (먼저)₁는 (먼저)₂로 읽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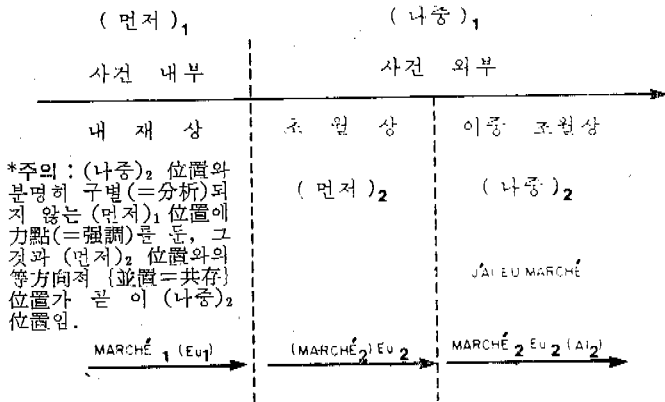


* (먼저)₂ 位置:

(나중)₁(=사건 외부=어휘₂= $T_2 \rightarrow$ MARCHÉ₁ \rightarrow AI₁)에 力點(=強調)을 둔, 그것(=나중₁=먼저₂)과, 그것(= T_2)의 내부적 형태(=먼저₁=사건 내부 \rightarrow : MARCHÉ₁(AI₁)= q_1) 및 외부적 형태(=먼저₂ \rightarrow : (MARCHÉ₂)AI₂= q_2)와의, 等方向적 共存位置: $(T_2+q_2)_2+(T_1+q_1)_1$ (=公式₁), $T(q_2 \rightarrow q_1)$ (=公式₂), 즉 $(\text{MARCHÉ}_2+AI_2)_2+(\text{MARCHÉ}_1+AI_1)_1$, MARCHÉ(AI₂ \rightarrow AI₁)로 表記 가능한 共存位置.

이어서,

전통언어학식(어휘 위주의 表記에 있어서의 위 그림에서의 等方向적 相互拒否적 (먼저)₁ 位置와 (먼저)₂ 位置의, 並置적 位置, 즉 그 並置의 시발점이 되는 (먼저)₁ 位置에 力點(=強調)을 둔, 그것과 (먼저)₂ 位置와의 等方向적 共存(=並置) 位置 \Rightarrow (나중)₂ 位置:



* 위 그림에서의 (等方向적) 相互拒否적 (먼저)₁ 位置, 즉:

公式(1)의 $(T_1+q_1)_1+(T_2+q_2)_2 \Rightarrow (\text{MARCH}_1+\phi_1)_1+(\text{MARCH}_2+\phi_2)_2$;

公式(2)의 $T(q_1 \rightarrow q_2) \Rightarrow \text{MARCH}(\phi_1 \rightarrow \phi_2)$ 와, (먼저)₂ 位置, 즉:

公式(1)의 $(T_2+q_2)_2+(T_1+q_1)_1 \Rightarrow (\text{MARCHÉ}_2+\text{AI}_2)_2+(\text{MARCHÉ}_1+\text{AI}_1)_1$;

公式(2)의 $T(q_2 \rightarrow q_1) \Rightarrow \text{MARCHÉ}(AI_1 \rightarrow AI_2)$ 의, {並置}적 位置 즉 그 {並置}의 始發점이 되는 (먼저)₁ 位置(=위 公式(1)/(2) 및 그 예)에 力點(=強調)을 둔, 그것과 (먼저)₂ 位置(=위 公式(1)/(2) 및 그 예)와의, 等方向적 {並置(=共存)} 位置 즉 :

公式(1)로는 : $\underbrace{\underbrace{(T_1+q_1)_1}_{(먼저)_1} + \underbrace{(T_2+q_2)_2}_{(먼저)_2}}_{(나중)_1} + \underbrace{\underbrace{(T_2+q_2)_2}_{(먼저)_2} + \underbrace{(T_1+q_1)_1}_{(먼저)_1}}_{(나중)_2} \Rightarrow$ (表記上으로 (나중)₂에 力點을 두었

음을 나타내기 위하여) $\underbrace{\underbrace{(T_2+q_2)_2}_{(먼저)_2} + \underbrace{(T_1+q_1)_1}_{(먼저)_1}}_{(나중)_2}$, 즉 : $\underbrace{\underbrace{(\text{MARCH}_1+\phi_1)_1}_{(먼저)_1} + \underbrace{(\text{MARCH}_2+\phi_2)_2}_{(먼저)_2}}_{(나중)_1}$

+ $\underbrace{\underbrace{(\text{MARCHÉ}_2+\text{AI}_2)_2}_{(먼저)_2} + \underbrace{(\text{MARCHÉ}_1+\text{AI}_1)_1}_{(먼저)_1}}_{(나중)_2} \Rightarrow$ (表記上으로 (나중)₂에 力點을 두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)

여) $\underbrace{\underbrace{(\text{EU MARCHÉ}+\text{AI}_2)_2}_{(먼저)_2} + \underbrace{(\text{EU MARCHÉ}_1+\text{AI}_1)_1}_{(먼저)_1}}_{(나중)_2}$;

公式(2)로는 : $\underbrace{T}_{(나중)_2} \underbrace{(q_1 \rightarrow q_2)}_{(먼저)_1 (먼저)_2} (\rightarrow) \underbrace{T}_{(나중)_2} \underbrace{(q_2 \rightarrow q_1)}_{(먼저)_2 (먼저)_1} \Rightarrow$ (表記上으로 (나중)₂에 力點을

두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) $\underbrace{T}_{(나중)_2} \underbrace{(q_2 \rightarrow q_1)}_{(먼저)_2 (먼저)_1}$, 즉 $\underbrace{\text{EU MARCHÉ}}_{(나중)_2} \underbrace{(AI_1 \rightarrow AI_2)}_{(먼저)_1 (먼저)_2}$

$\underbrace{\text{EU MARCHÉ}}_{(나중)_2} \underbrace{(AI_2 \rightarrow AI_1)}_{(먼저)_2 (먼저)_1} \Rightarrow$ (表記上으로 (나중)₂에 力點을 두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)

$\underbrace{\text{EU MARCHÉ}}_{(나중)_2} \underbrace{(AI_2 \rightarrow AI_1)}_{(먼저)_2 (먼저)_1}$.

*이 {並置}적 位置의 특징은, (나중)₂ 位置에 力點(=強調)을 둔, 그것과 (나중)₁ 位置에서의 (먼저)₁ 位置/(먼저)₂ 位置와의, 等方向적 共存(=並置)이다. 따라서 이 특징은, 위에서 설명한 (먼저)₁ 位置/(먼저)₂ 位置(=等方向적 相互拒否적 共存位置)와, 다 같이, (나중) 位置와 분명히 구별(=分析)되지 않는 (먼저)₁ 位置/(먼저)₂ 位置=(나중) 位置에 力點(=強調)을 둔, 그것과 (먼저)₁ 位置/(먼저)₂ 位置와의 等方向적 共存位置라는 점에서, 그 특징을 함께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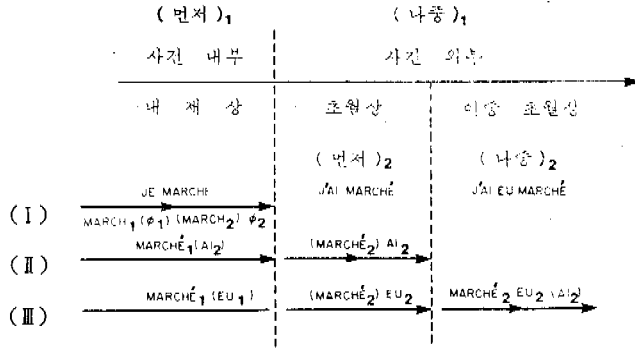
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의 表記, 즉 : 1) 전통언어학식(어휘 위주의) 어휘와 형태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表記, 2) G. 식·전통언어학식(어휘 위주의) 어휘와 형태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 表記 그리고 3) 초월적·脫 전통언어학식(형태 위주의) 형태와 어휘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 表記를,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:

1) 전통언어학식(어휘 위주의) 어휘와 형태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表記 :

* 주의(1) : 그림안의 화살표에서의 비괄호/괄호()의 구별 표시는 力點(=強調)/非力點(=非強調)의 구별 표시임.

* 주의(2) : 아래 公式에서 T=어휘, q=형태이고, 순서상 먼저/나중은 力點(=強調)/非力點(=非強調)을 표시함(앞 pp.181-182 참조).

* 주의(3) : 이 表記은 아래 2)의 G.식 表記에 비하여, 어휘(T)에 力點(=強調)을 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, 그 어휘(T)에 力點(=強調)을 둔, 그것과 형태(q)와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表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(앞 pp.195-196 참조). 따라서 非分析적 表記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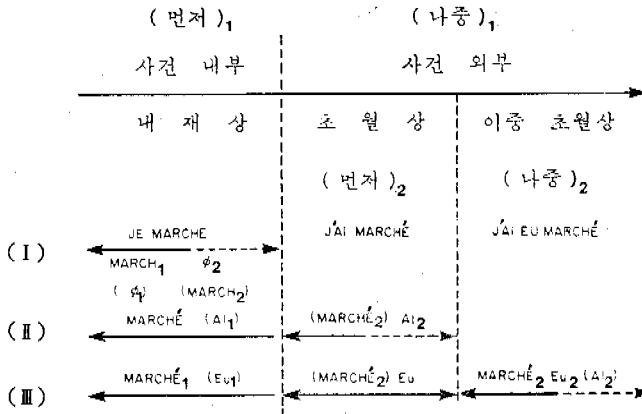


(I) {公式(1) : (T₁+q₁)₁+(T₂+q₂)₂ (II) {公式(1) : (T₂+q₂)₂+(T₁+q₁)₁ (III) {公式(1) : (T₂+q₂)₂+(T₁+q₁)₁
 {公式(2) : T(q₁→q₂) {公式(2) : T(q₂→q₁) {公式(2) : T(q₂→q₁)

2) G.식·脫전통언어학식(어휘 위주의) 어휘와 형태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 表記 :

* 주의(1), (2) : 위 1)의 주의(1), (2)와 같음.

* 주의(3) : 이 表記은 위 1)의 脫전통언어학식 表記에 비하여, 어휘(T)에 力點(=強調)을 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, 그 어휘(T)에 力點(=強調)을 둔, 그것과 형태(q)와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 表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(앞 p.195 참조). 따라서 위 1)식 表記에 비하여는 分析적 表記임. 그러나 (어휘 위주)라는 점에서 아래 3)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 表記에 비해서는 非分析적 表記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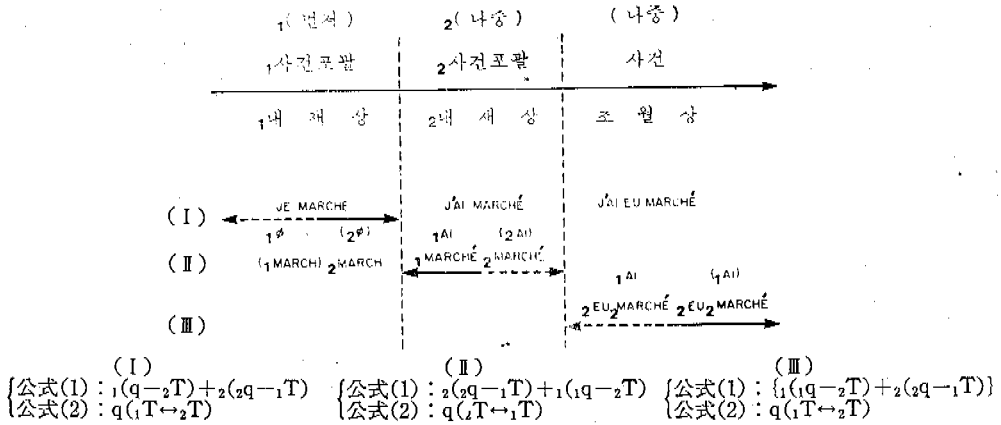


(I) {公式(1) : (T₁-q₂)₁+(T₂-q₁)₂ (II) {公式(1) : (T₂-q₁)₂+(T₁-q₂)₁ (III) {公式(1) : (T₂-q₁)₂+(T₁-q₂)₁
 {公式(2) : T(q₁→q₂) {公式(2) : T(q₂→q₁) {公式(2) : T(q₂→q₁)

3) 초월적·脫전통언어학식(형태 위주의) 형태와 어휘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 表記 :

* 주의(1), (2) : 위 1)의 주의(1), (2)와 같음.

* 주의(3) : 이 表記는 위 1) 및 2) 表記에 비하여, 형태(q)에 力點(=調強)을 둔, 그것과 어휘(T)와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表記라는 점에서, 완전한 分析적 表記임(앞 p.196 참조).



위 종합적 그림에 나타난 1) 전통식, 2) G.식, 3) 초월식 表記를, 分析的 성격이라는 각도에 주의를 집중시켜서 公式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(*편의상 公式(2)를 사용함):

1) 전통식(어휘 위주의) 表記 :

* T(=어휘)와 $(q_1 \leftrightarrow q_2)$ (=형태)의 等方向적 相互拒否적 共存位置 :

1) (먼저)₁(=내재적) 位置 : T(=어휘=어휘 내부)에 力點(=強調)을 둔, T(=어휘 내부)와 $(q_1 \leftrightarrow q_2)$ (=형태=어휘 외부)의 等方向적 共存位置, 즉 : T($q_1 \leftrightarrow q_2$). 이 때 T(=어휘 내부)는 그에 첨가되는 $(q_1 \leftrightarrow q_2)$ (=어휘 내부의 형태)에 대하여 어휘적 피 첨가체적(=내재적) 성격을 띤다.

2) (먼저)₂(=초월적) 位置 : $(q_2 \rightarrow q_1)$ (=형태=어휘 외부)에 力點(=強調)을 둔, T(=어휘=외부적 어휘)와 $(q_1 \leftrightarrow q_2)$ (=형태=어휘 외부)의 等方向적 共存位置, 즉 : T($q_2 \rightarrow q_1$). 이 때 $(q_2 \rightarrow q_1)$ (=어휘 외부의 형태)는 그것이 첨가되는 T(=외부적 어휘)에 대하여 어휘적 첨가적(=초월적) 성격을 띤다.

* 위 (먼저)₁ 位置 : T($q_1 \leftrightarrow q_2$)(=어휘=어휘 내부)와 (먼저)₂ 位置 : T($q_2 \rightarrow q_1$)(=형태=어휘 외부)의 等方向적 並置적(=이중 초월적) 共存位置 즉 : T($q_1 \leftrightarrow q_2$)(\rightarrow)T($q_2 \rightarrow q_1$), 즉 T($q_2 \rightarrow q_1$)(=먼저₂=어휘 외부)에 力點(=強調)을 둔, 그것과 T($q_1 \leftrightarrow q_2$)(=먼저₁=어휘 내부)와의 等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, 즉 : T($q_2 \rightarrow q_1$). 이 때 T($q_2 \rightarrow q_1$)(=어휘 내부와 어휘 외부의 並置)는, 그에 첨가되는 T($q_1 \leftrightarrow q_2$)(=먼저₁=어휘 내부의 형태) 및 T($q_2 \rightarrow q_1$)(=먼저₂=어휘 외부의 형태)에 대하여, 어휘적 피 첨가체적(이중초월적) 성격을 띤다.

2) G.식·脫전통식(어휘 위주의) 表記 :

* T(=어휘)와 $(q_1 \leftrightarrow q_2)$ (=형태)의 異(逆)方向적 相互拒否적 共存位置 :

1) (먼저)₁(=내재적) 位置 : T(=어휘=어휘 내부)에 力點(=強調)을 둔, T(=어휘 내부)와 $(q_1 \leftrightarrow q_2)$ (=형태=어휘 외부)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, 즉 : T($q_1 \leftrightarrow q_2$). 이 때 T(=어휘 내부)는 그것을 실현하는 $(q_1 \leftrightarrow q_2)$ (=어휘 내부의 형태)에 대하여, 위의 1)식 表記의 어휘적 피 첨가체적 T(=

어휘 내부)를 分析한, 어휘적 張力體(=잠재체=내재)적 성격을 된다.

2) (먼저)₂(=초월적)位置: $(q_2 \leftrightarrow q_1)$ (=형태=어휘 외부)에 力點(=強調)을 둔, T (=어휘=외부적 어휘)와 $(q_1 \leftrightarrow q_2)$ (=형태=어휘 외부)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, 즉: $T(q_2 \leftrightarrow q_1)$. 이 때 $(q_2 \leftrightarrow q_1)$ (=어휘 외부의 형태)는 그것이 실현하는 T (=외부적 어휘)에 대하여, 위의 1)식 表記의 어휘적·첨가적(=초월적) $(q_2 \rightarrow q_1)$ (=어휘 외부의 형태)를 分析한, 어휘적 실현체적(=초월적) 성격을 된다.

* 위 (먼저)₁ 位置: $T(q_1 \leftrightarrow q_2)$ (=어휘=어휘 내부)와 (먼저)₂ 位置: $T(q_2 \leftrightarrow q_1)$ (=형태=어휘 외부)의 異(逆)方向적 並置적(=이중 초월적) 共存位置 즉: $T(q_1 \leftrightarrow q_2) \leftrightarrow T(q_2 \leftrightarrow q_1)$, 즉 $T(q_2 \leftrightarrow q_1)$ (=먼저₂=어휘 외부)에 力點(=強調)을 둔, 그것과 $T(q_1 \leftrightarrow q_2)$ (=먼저₁=어휘 내부)와의 異(逆)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, 즉: $T(q_2 \leftrightarrow q_1)$. 이 때 $T(q_2 \leftrightarrow q_1)$ (=어휘 내부와 어휘 외부의 並置)는, 그것을 실현하는 $T(q_1 \leftrightarrow q_2)$ (=먼저₁=어휘 내부의 형태) 및 $T(q_2 \leftrightarrow q_1)$ (=먼저₂=어휘 외부의 형태)에 대하여, 위의 1)식 表記의 어휘적 附加체적(=내재적) $T(q_2 \leftrightarrow q_1)$ (=어휘 내부와 어휘 외부의 並置)를 分析한, 어휘적 張力體적(=잠재체적=이중초월적) 성격을 된다.

3) 초월적·脫절통식(형태 위주의) 表記:

* $(q_1 \leftrightarrow_2 q)$ (=형태)와 T (=어휘)의 異(逆)方向적 相互拒否적 共存位置:

1) ₁(먼저)(=1초월적)位置: q (=형태=어휘 초월·포괄)에 力點(=強調)을 둔, q (=어휘 초월·포괄)과 $(T_1 \leftrightarrow_2 T)$ (=어휘=형태 내재·피포괄)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, 즉: $q(T_1 \leftrightarrow_2 T)$. 이 때 q (=어휘 초월·포괄)는 그에 포괄되는 $(T_1 \leftrightarrow_2 T)$ (=형태에 내재하는 피포괄적 어휘)에 대하여, 위의 2)식 表記의 어휘적 張力體(=잠재체)적 T 를 分析내지 초월한, 형태적 포괄체적(=초월적) 성격을 된다.

2) ₂(먼저)(=2초월적)位置: $(T_2 \leftrightarrow_1 T)$ (=형태에 내재하는 피포괄적 어휘)에 力點(強調)을 둔, q (=형태=어휘를 초월한 포괄적 형태)와 $(T_2 \leftrightarrow_1 T)$ (=어휘=형태 내재·피포괄)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, 즉: $q(T_2 \leftrightarrow_1 T)$. 이 때 $(T_2 \leftrightarrow_1 T)$ (=형태에 내재하는 피포괄적 어휘)는 그것을 포괄하는 q (=어휘를 초월한 포괄적 형태)에 대하여, 위의 2)식 表記의 어휘적 실현체적(=초월적) $(q_2 \leftrightarrow q_1)$ 을 分析내지 초월한, 형태적 피포괄체적(=내재적) 성격을 된다.

* 위 ₁(먼저) 位置: $q(T_1 \leftrightarrow_2 T)$ (=1형태=1어휘 포괄)과 ₂(먼저) 位置: $q(T_2 \leftrightarrow_1 T)$ (=2형태=2어휘 포괄)의 異(逆)方向적 並置적(=내재적) 共存位置 즉: $q(T_1 \leftrightarrow_2 T) \leftrightarrow q(T_2 \leftrightarrow_1 T)$, 즉 $q(T_1 \leftrightarrow_2 T)$ (=1먼저=1어휘 포괄)에 力點(=強調)을 둔, 그것과 $q(T_2 \leftrightarrow_1 T)$ (=2먼저=2어휘 포괄)와의 異(逆)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 즉: $q(T_1 \leftrightarrow_2 T)$. 이 때 $q(T_1 \leftrightarrow_2 T)$ (=1어휘 포괄과 2어휘포괄의 並置)는 그것을 포괄하는 $q(T_2 \leftrightarrow_1 T)$ (=2먼저=2어휘 포괄) 및 $q(T_2 \leftrightarrow_1 T)$ (=2먼저=2어휘 포괄)에 대하여, 원편의 2)식 表記의 어휘적 張力體(=잠재체=이중 초월)적 $T(q_2 \leftrightarrow q_1)$ (=어휘 내부와 어휘 외부의 並置)를 分析내지 초월한, 형태적 피포괄체적(=내재적) 성격을 된다.

위의 세 表記의 比較를 對角線으로 表記하여 比較하면 아래와 같다(그림 6에 해당함)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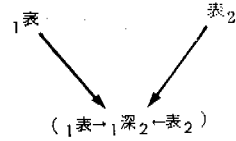
* 주의: 가로(1)/(2)/(3)은 각각 위의 세 表記의 구분(=절통식/G.식/초월식 表記)을 나타냄; 세로(1)/(2)는 相互拒否적 (먼저)₁/(먼저)₂((1)/(2) 表記의 경우) 내지 ₁(먼저)/₂(먼저)((3) 表記의 경우)를 나타내고, (3)은 並置적 (나중)₁/(나중)₂(=1)/(2) 表記의 경우) 내지 (나중)(=3) 表記의 경우)을 나타냄; 對角線 그림 각각을 설명하는 公式에서 變形은 並置(=매듭=核)=(나중)을 나타내고, 深/表는 相互拒否적(먼저)=(非매듭=非核)을 나타내고, 變形/深/表 각각에 붙은 숫자 표시($\phi, 1, 2$)는, 1=(먼저)₁, 2=(먼저)₂, 1·2=(나중)(=1)식 表記과 (2)식 表記의 경우)을, 1ϕ =₁(먼저), 2ϕ =₂(먼저), 1·2=(나중)(=3)식 表記의 경우)을 각각 나타냄(*이 그림은 抽稿:變形理論과 그 類

型의 定立作業, 語學研究(23:03), 1987, pp.425-426의 그림을, 위의 (1)/(2)/(3)식 表記의 설명에 맞게 배치한 것임).

(1)

°等方向적 變形₁有(=變₁)의 公式 (1)

“₁表←(變₁)→₁深₂←(變₂)←表₂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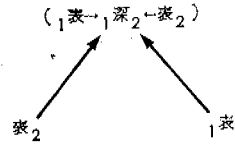


*주의 : 等方向적 숫자 표시는, 左/右를, 숫자 순에 따라, 그 표시 장소로 함, 이하 모두에 해당됨.

°等方向적 變形₂有(=變₂)의 公式

“表₂←(變₂)→₁深₂←(變₁)←表₁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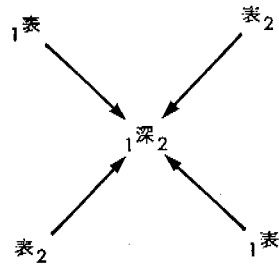
(2)



°等方向적 變形₁有₂(=變₂)의 公式

“₁表←(變₁)→₁深₂←(變₂)←表₂”

(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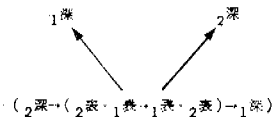


(2)

°異方向적 變形₁有(=變₁)의 公式

“₁深←(變₁)→(₂表·₁表→₁表·₂表)←(變₂)→₂深”

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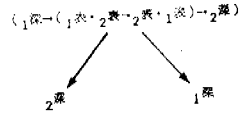


*주의 : 準異方向의 숫자 표시는, 위(1)의 주의와 같되, 괄호()안에 넣어서 표시함. 이 그림에서 의 표시는 괄호() 표시로 간주함.

°異方向적 變形₂有(=變₂)의 公式

“ $_2\text{深}-(\text{變})\rightarrow(\text{表}\cdot\text{表}\rightarrow\text{表}\cdot\text{表})-(\text{變})\rightarrow\text{深}$ ”

(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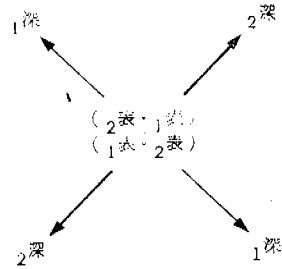


*주의 : 이 그림 및 바로 위 그림의 위편/오른편의 가는선/굵은선의 화살표시는 바뀌서 읽음.

°異方向적 變形 $_1\text{有}\cdot_2\text{有}(={}_1\text{變}\cdot{}_2\text{變})$ 의 公式

“ $_1\text{深}-(\text{變})\rightarrow(\text{表}\cdot\text{表}\rightarrow\text{表}\cdot\text{表})-(\text{變})\rightarrow_2\text{深}$ ”

(3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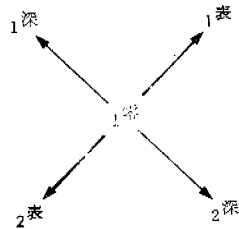
*주의 : 이 그림의 화살 표시는 모두 굵은 화살 표시로 읽음.

(3)

°異方向적 變形 $_1\text{零}(\phi)$ 의 公式

“ $_1\text{深}-(\phi)\rightarrow(\text{表}\rightarrow\text{表})-(\phi)\rightarrow_2\text{深}$ ”

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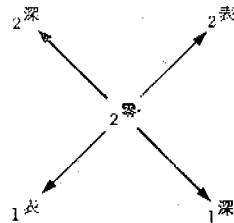


*주의 : 異方向적 숫자 표시는, 숫자순에 관계 없이 항상, 좌를 그 표시장소로 함. 이하 모두에 해당됨.

°異方向적 變形 $_2\text{零}(={}_2\phi)$ 의 公式

“ $_2\text{深}-(\phi)\rightarrow(\text{表}\rightarrow\text{表})-(\phi)\rightarrow_1\text{深}$ 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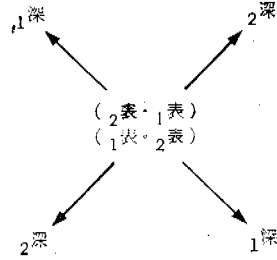
(2)



°異方向적 變形 1有·2有(=1變·2變)의 公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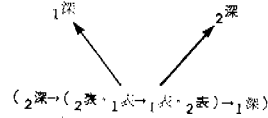
“ $1深-(1變)→(2表·1表→1表·2表)-(2變)→2深$ ”

(3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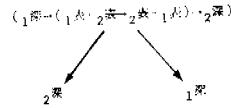
°異方向적 變形 1有(=1變)의 公式

“ $1深-(1變)→(2表·1表→1表·2表)-(2變)→2深$ ”



°異方向적 變形 2有(=2變)의 公式

“ $2深-(2變)→(1表·2表→2表·1表)-(1變)→1深$ ”








* 주의 : 이 그림 6의 (1)식과 (2)식 表記의 세로의 (순서) : (1), (2), (3)은, 이들 (1)식 및 (2)식 表記가, (3)식 表記에 대한 誤認(=混同)임을 認定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은, 즉, (3)식 表記와 같다고 主張하는 表記에서의 (순서)임에 주의. 따라서 (순서) (3)이 맨 위로 올라가고 (순서) (1), (2)가 그 밑에 음에 주의 (*뒤 pp. 221-224 참조).

위 對角線 그림의 比較 설명은, 이미 앞에서 T(=어휘)와 q(=형태)의 共存位置를 그 分析이라는 같도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 바를 그대로 반복함으로써,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. 그러므로 그 끝 부분(= (3) 즉 並置적 位置)만을 比較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:

(1)

* 위 그림의 (먼저)₁(=매듭₁有=내재적) 位置(↘↗) : “ $1表-(1變)→1深←(2變)-1表$ ”(매듭有=어휘 내부)와 (먼저)₂(=초월적) 位置(↗↘) “ $2表-(2變)→1深←(1變)-1表$ ”(매듭有₂=형태=어휘 외부)의 等方向적 並置적(=이중 초월적) 共存位置(✕) 즉 : “ $1表-(1變)→1深←(2變)-1表$ ” 즉 (먼저)₂(↗↘)(=매듭有₂=형태=어휘 외부)에 力點(=強調)을 둔, 그것(↗↘)과 (먼저)₁(↘↗)(=매듭₁有=어휘 내부)과의 等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(✕)(매듭₁有₂). 이 때 그 並置적 共存位置(✕)(=매듭₁有₂)는, 그에 첨가되는 (먼저)₁(↘↗)(=매듭₁有=어휘 내부의 형태=어휘 내부) 및 (먼저)₂(↗↘)(=매듭₂有=어휘 외부의 형태=어휘 외부)에 대하여, 어휘적 피첨가체적(=이중 초월적) 성격을 띤다.

* 위에 말한 바로 부터, 어휘적 피침가체적(=이중 초월적) 성격을 띤 등방향적 並置적 매듭₁有₂적 共存位置() (=위 해당 公式)를, 그것을 등방향적 첨가적으로 구성하는 (먼저)₁적(=내재적=어휘 내부의 형태적=매듭₁有적) 位置() (=위 해당 公式) 및 (먼저)₂적(=초월적=어휘 외부의 형태적=매듭₂有적) 位置() (=위 해당 公式)에 대하여, 統辭論(=먼저₁과 먼저₂의 등방향적 並置적 位置)이라 부르고, 그 등방향적 相互拒否적 구성요소 즉 (먼저)₁ 位置()와 (먼저)₂ 位置()를 形態論이라 부른다.

그러므로 이 (1)식 表記에 있어서의 등방향적 形態論/統辭論의 구분(=分析)의 토대는 언제나 等方向적 統辭論에 있다. 따라서 이 (1)식 等方向식 表記에 있어서는, 형태론/통사론이 구분(=分析)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, 모든 것은 통사론이라는 말이 나온다. 즉 원래가 分析不能의 核(매듭)을 위주로 한 그것과 非核(=非매듭)의 등방향적 共存位置라는 점에서, 형태론/통사론의 구분(=分析)이 없으며, 그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核(=매듭)과 非核(=非매듭)과의 등방향적 共存位置에 토대를 둔다는 점에서, 모든 것은 통사론(=통사론적 형태론 및 통사론적 통사론이라는 의미에서의 통사론)이라는 말이 나온다.

* 예컨대, 위 等方向적 脫對角線그림의

(1) 等方向적 變形₁有(=1變)의 公式:

“₁表-(₁變)→₁深←(₁變)-₁表₂”, 즉 (먼저)₁ 位置와, 그와 等方向적 相互拒否적 (먼저)₂ 位置, 즉:




(2) 等方向적 變形₂有(=2變)의 公式:

“₂表-(₂變)→₂深←(₂變)-₂表”을 통사론적 형태론이라 할 때, 그것들의 等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 즉:











(3) 等方向적 變形₁有₂(=1變₂)의 公式 즉:



“₁表-(₁變)→₁深←(₂變)-₂表”는 통사론적 통사론이다.

그러나, 이 (1)/(2)位置와 (3)位置는, 원래가 分析不能의 어휘적·통사론적·核적·매듭有적 (3)位置의 支配를 받는, 형태론/통사론의 구별(=分析)이 없는 等方向적 共存位置를 이룬다. 이때 이것을 형태론이라고 할 때, 이 等方向적 형태론적 共存位置에 대한, 역시 等方向적 통사론적 共存位置(=통사론)란, 等方向적 형태론적 共存位置의 중심이 되는 (3)位置 즉 통사론적·어휘적 核(=매듭)을, 그보다 더 큰(=그것이 等方向적으로 첨가되어 이룩됐다고 생각되는) 즉 等方向적 통사론적·어휘적 核(=매듭)으로 바꾼,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, (1), (2), (3)의 等方向적 共存位置이다. 즉 모두가 각각 형태론/통사론으로 구분(=分析)되지 않고 오직 통사론만이 있다.

그리고 그 그림의 모양은 모두 (3)位置()를 중심으로 향한 等方向적 準脫對角線( )이 된다.

(2)

* 위 그림의 (1)(먼저)(=매듭₁有=내재적)·位置(): “₁深-(₁變)→(₂表·₁表→₁表·₂表)-(₂變)→₂深”(=매듭₁有=어휘=어휘 내부)와 (2)(먼저)(초월적) 位置() (=매듭₂有=형태=어휘 외부)의 異(逆)方向적 並置적(=이중 초월적) 共存位置() 즉: “₁深-(₁變)→(₂表·₁表→₁表·₂表)-(₂變)→₂深”, 즉 (2)(먼저)() (매듭₂有=형태=어휘 외부)에 力點(=強調)을 둔, 그것()과 (1)(먼저)() (=매듭₁有=어휘 내부)과의 異(逆)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() (매듭₁有·(2)有)). 이때 그 並置적 共存位置() (=매듭₁有·(2)有)는, 그것을 실현하는 (1)(먼저)() (=매듭₁有=어휘 내부)의 형태=위 해당 公式) 및 (2)(먼저)() (=매듭₂有=어휘 외부)의 형태=위 해당 公式)에 대하여, 어휘적 피 실현체(=장재체=이중 초월)적 성격을 띤다.

* 위에 말한 바로 부터, 어휘적 피실현체(=장재체=이중초월)적 성격을 띤 異(逆)方向적 並置적 매듭₁有·₂有적 共存位置() (=위 해당 公式)를, 그것을 異(逆)方向적으로 실현하는 (1)(먼저)적(=내재적=어휘 내부)의 형태적=매듭₁有적) 位置() (=위 해당 公式) 및 (2)(먼저)적(=초월

적=어휘의부의 형태적=매듭₍₂₎有적) 位置(↙↘)(=위 해당 公式)에 대하여, 統辭論(=1)먼저와 (2)먼저의 異(逆)方向적 並置적 位置)이라 부르고, 그 異(逆)方向적 相互拒否적 실현요소 즉 (1)먼저) 位置(↘↙)와 (2)먼저) 位置(↙↘)를 形態論이라 부른다.

그러므로 이 (2)식 表記에 있어서의 異(逆)方向적 形態論/統辭論의 구분(=分析)의 토대는 언제나 異(逆)方向적 統辭論에 있다. 따라서 이 (2)식 異(逆)方向적 表記에 있어서, 형태론/통사론이 구분(=分析)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, 모든 것은 통사론이라는 말이 나온다. 즉 원래가 分析不能의 核(=매듭)을 위주로 한 그것과 非核(=非매듭)과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라는 점에서, 형태론/통사론의 구분(=分析)이 없으며, 그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核(=매듭)과 非核(=非매듭)과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에 토대를 둔다는 점에서, 모든 것은 통사론(=통사론적 형태론 및 통사론적 통사론)이라는 의미에서의 통사론)이라는 말이 나온다.

* 예컨대, 위 準異(逆)方向적 準對角線 그림의

(1) 異方向적 變形₁有(=1變)의 公式:

“₁深-(₁變)→(₂表·₁表→₁表·₂表)-(2變)→₂深”, 즉 (1)먼저) 位置와, 그와 異(逆)方向적 相互拒否적 (2)먼저) 位置, 즉:

(2) 異方向적 變形₂有(=2變)의 公式:

“₂深-(2變)→(₁表·₂表→₂表·₁表)-(1變)→₁深”을 통사론적 형태론이라 할 때, 그것들의 異(逆)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 즉:

(3) 異方向적 變形₁有·₂有의 公式:

“₁深-(1變)→(₂表·₁表→₁表·₂表)-(2變)→₂深”는 통사론적 통사론이다.





그러나, 이 (1), (2)位置와 (3)位置는, 원래가 分析不能의 어휘적·통사론적·核적·매듭有적 (3)位置의 支配를 받는, 형태론/통사론의 구별(=分析)이 없는,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물 이룬다. 이때 이것을 형태론이라고 할 때, 이 異(逆)方向적 형태론적 共存位置에 대한, 역시 異(逆)方向적 통사론적 共存位置(=통사론)란, 異(逆)方向적 형태론적 共存位置의 중심이 되는 (3)位置 즉 통사론적·어휘적·核(=매듭)을, 그보다 더 큰(=그것이 異(逆)方向적으로 실현되어 이룩했다고 생각되는) 즉 異(逆)方向적 통사론적·어휘적 核(=매듭)으로 바꾼,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, (1), (2), (3)(=위 公式 참조)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이다. 즉 모두가 각각 형태론/통사론으로 구분(=分析)되지 않고, 오직 통사론만이 있다.

그리고 그림의 모양은 모두, (3)位置(↔↔)를 중심으로 한 異(逆)方向적 準對角線(↘↙↗↘)이 된다.

(3)

* 위 그림의 ₁(먼저)(=매듭₁φ=₁초원적)位置(↔↔): “₁深-(₁φ)→(₂表→₁表)-(2φ)→₂深”(=매듭₁φ=₁형태=₁어휘포괄)와 ₂(먼저)(=2초월적)位置(↔↔)(=매듭₂φ=₂형태=₂어휘 포괄)의 異(逆)方向적 並置적(=내재적) 共存位置(↔↔↘↙↗↘) 즉: “₁深-(1變)→(₂表·₁表→₁表·₂表)-(2變)→₂深”, 즉 ₁(먼저)(↔↔)(=매듭₁φ=₁형태=₁어휘포괄)에 力點(=強調)을 둔, 그것(↔↔)과 ₂(먼저)(↔↔)(=매듭₂φ=₂형태=₂어휘포괄)와의 異(逆)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(↔↔↘↙↗↘)(=매듭₁有·₂有). 이때 그 並置적 共存位置(↔↔↘↙↗↘)(=매듭₁有·₂有)는, 그것을 포괄하는 ₁(먼저)(↔↔)(=매듭₁φ=₁형태=₁어휘포괄=위 해당 公式) 및 ₂(먼저)(↔↔)(매듭₂φ=₂형태=₂어휘포괄=위 해당 公式)에 대하여, 형태적 피포괄체(=내재적)적 성격을 띤다.

* 위에 말한 바로 부터, 형태적 피 포괄체적(=내재적) 성격을 띤 異(逆)方向적 並置적 매듭₁有·₂有적 共存位置(↔↔↘↙↗↘)(=위 해당 公式)를, 그것을 異(逆)方向적으로 포괄하는 ₁(먼저)적

(=1초월적=1어휘포괄적=매듭 ϕ 적) 位置() (=위 해당 公式) 및 2(먼저)적(=2초월적=2어휘포괄적=매듭 ϕ 적) 位置() (=위 해당 公式)에 대하여, 統辭論(=1먼저 位置와 2먼저 位置의 異(逆)方向적 並置적 位置)이라 부르고, 그 異(逆)方向적 相互拒否적 포괄요소 즉 1(먼저) 位置()와 2(먼저) 位置()를 形態論이라 부른다.

그러므로 이 (3)식 表記에 있어서의 異(逆)方向적 形態論/統辭論의 구분(=分析)의 토대는 언제나 異(逆)方向적 形態論에 있다. 따라서 이 (3)식 表記에 있어서, 형태론/통사론이 구분(=分析)된다는 의미에서, 모든 것은 형태론이라는 말이 나온다. 즉 원래가 分析可能的 非核(非매듭)을 위주로 한 그것과 核(=매듭)과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라는 점에서, 형태론/통사론이 구분(=分析)되며, 그 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인 非核(=非매듭)과 核(=매듭)과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에 토대를 둔다는 점에서, 모든 것은 형태론(=형태론적 형태론 및 형태론적 통사론이라는 의미에서의 형태론)이라는 말이 나온다.

* 예컨대, 위 異(逆)方向적 對角線 그림의

(1) 異方向적 變形 1零(1ϕ)의 公式:

“ $1深-(1\phi)\rightarrow(2表\rightarrow 1表)\rightarrow(2\phi)\rightarrow 2深$ ”, 즉 1(먼저) 位置와, 그와 異(逆)方向적 相互拒否적 2(먼저) 位置, 즉:





(2) 異方向적 變形 2零(2ϕ)의 公式:

“ $2深-(2\phi)\rightarrow(1表\rightarrow 2表)-(1\phi)\rightarrow 1深$ ”을 형태론적 형태론이라 할 때, 그것들의 異(逆)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 즉:

(3) 異方向적 變形 1有·2有的 公式:

“ $1深-(1變)\rightarrow(2表\rightarrow 1表\rightarrow 2表)-(2變)\rightarrow 2深$ ” 및 °異方向적 變形 1有(=1變)의 公式/°異方向적 變形 2有(=2變)의 公式(앞 그림 참조)는 형태론적 통사론이다.

그리고, 이 (1), (2)位置와 (3)位置는, 원래가 分析可能的 형태적·형태론적·非核적·매듭零(ϕ)적 (1)과 (2)位置의 支配를 받는, 형태론/통사론의 구별(=分析)이 있는,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물 이 된다. 이 때 이것을 형태론이라고 할 때, 이 異(逆)方向적 형태론적 共存位置에 대한, 역시 異(逆)方向적 통사론적 共存位置(=통사론)란, 異(逆)方向적 형태론적 共存位置의 근원이 되는 (1), (2)位置 즉 형태론적·형태적·非核(=非매듭)을, 그보다 덜 큰(=分析可能的 형태가 分析不能의 어휘를 포괄 내지 分析한다는 의미에서 덜 큰=그것이 異(逆)方向적으로 포괄한다고 인정되는) 즉 異(逆)方向적 형태론적·형태적 核(=매듭)으로 바꾼, 그리고 그것을 근원으로 한, (1), (2), (3)(=위 公式 참조)의 異(逆)方向적 共存位置이다. 즉 모두가 각각 형태론/통사론으로 구분(=分析)된다.

그리고 그림의 모양은 모두 (1), (2)位置() () = )를 근간으로 한 異(逆)方向적 對角線() 이 된다.

위에서 1)식, 2)식, 3)식 表記에 대하여 행한 公式적 설명에 나오는 (어휘)T와 (형태)q의 (等方向적/異方向적) 共存位置라는 用語에서, 位置라는 개념은 순서라는 개념과 같다. 즉 그 位置의 특징은 본질적으로 (어휘)T와 (형태)q 중에서 어느 것에 더(=먼저) 力點(=強調)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다. 이 순서라는 개념에 주의를 두고 위에서와 같은 설명을 하면 아래와 같다(*주의: 아래 公式에서, 深=형(태)=q, °=어(휘)=T, (變)零(ϕ)(1, 2)=형(태)적·非매듭(=非核)적, (變)有(1, 2)=어(휘)적·매듭(=核)적이라고 읽음; 설명의 순서는 위에서와 같음):

* 순서(1) :

等方向적 變形 1 有 2 (= 1 變 2)의 公式 :

“ 1 表 1 -(1 變) \rightarrow 1 深 2 ←(2 變) 1 表 2 ” 즉

“ 1 形 1 -(1 語적) \rightarrow 1 語 2 ←(2 語적) 1 形 2 ” 즉

“ 1 q-(1 T적) \rightarrow 1 T 2 ←(2 T적) 1 q 2 ” 즉

公式(1)로는 :

{(T_2+1q) $_2$ } (*앞 p.199의 等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의 公式 참조)

公式(2)로는 :

T($q_2\rightarrow 1q$)은 :

언제나 어휘적(=變形 有적=매듭 有적=核적=T적)인 성격을 띤, 어휘(=深=T)와 형태(=表=q)의 等方向적 피침가(=T)/첨가(=q)적 共存位置 중에서 가장 토대가 되는 순서(1)의 皮침가체(=T)적(=並置적) 共存位置이다.

순서(2) :

첫째 :

等方向적 變形 1 有(1 變)의 公式 :

“ 1 表 1 -(1 變) \rightarrow 1 深 2 ←(2 變) 1 表 2 ” 즉

“ 1 形 1 -(1 語적) \rightarrow 1 語 2 ←(2 語적) 1 形 2 ” 즉

“ 1 q-(1 T적) \rightarrow 1 T 2 ←(2 T적) 1 q 2 ” 즉

公式(1)로는 :

$1(1T+1q)+(T_2+q_2)_2$

(*앞 p.198의 等方向적 相互拒否적 共存位置의 公式 참조)

公式(2)로는 :

T($1q\rightarrow q_2$)

둘째 :

等方向적 變形 有 2 (= 2 變 2)의 公式 :

“ 2 表 2 -(2 變) \rightarrow 2 深 2 ←(1 變) 2 表 1 ” 즉

“ 2 形 2 -(2 語적) \rightarrow 2 語 2 ←(1 語적) 2 形 1 ” 즉

“ q_2 -(2 T적) \rightarrow 2 T 2 ←(1 T적) 1 q” 즉

公式(1)로는 :

(T_2+1q) $_2+1(1T+q_2)$

公式(2)로는 :

T($q_2\rightarrow 1q$)은 :

위 순서(1)의 皮침가체(=T)적(=並置적) 共存位置과 첨가적으로 구성하는, 언제나 어휘적(=變形 有적=매듭 有적=核적=T적) 성격을 띤, 순서(2)의 等方向적 첨가(=q)적(=相互拒否적) 共存位置이다.

* 따라서, 이 1)식 表記의 “순서(1)(=피침가체) \rightarrow 순서(2)(=첨가체)”를, “순서(1)(=첨가체) \rightarrow 순서(2)(=피침가체)”라고 생각(=主張)하는 것은, 그것이 等方向적 “순서(1)(=피침가체) \rightarrow 순서(2)(=첨가체)”의 배두리에서의 (순서)임을 인정하지 않고, 그것을 가장 分析된 3)식 表記 즉 異(逆)方向적 “순서(1)(=포괄체) \rightarrow 순서(2)(=피포괄체)”라고 생각(=主張=混同)하는 것이 된다.

이러한 混同 내지 主張을, 어휘적 성격을 띤 三分法적 用語(예 : 내제 \rightarrow 조월 \rightarrow 이중조월 ; 1 表 1 -(1 變) \rightarrow 1 深 2 ←(2 變) 1 表 2 ”= 1 내제 1 -(1 조월적) \rightarrow 1 이중조월 2 ←(2 조월적 2) 1 내제 2 ” ; 조 \rightarrow 중 \rightarrow 중 ; $1\rightarrow 2\rightarrow 3$ 등등)가 반영하고 있다. 또 위의 세 表記의 比較 설명에서, 3)식 表記에 비한 이 1)식 表記의 설명의 空

白이 그 非分析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.

* 순서(1) :

準異(逆)方向적 變形 1 有 $\cdot 2$ 有(=變 $\cdot 2$ 變)의 公式 :

“ 1 深 $-(1$ 變) $\rightarrow(2$ 表 $\cdot 1$ 表 $\rightarrow 1$ 表 $\cdot 2$ 表) $-(2$ 變) $\rightarrow 2$ 深” 즉

“ 1 形 $-(1$ 語적) $\rightarrow(2$ 語 $\cdot 1$ 語 $\rightarrow 1$ 語 $\cdot 2$ 語) $-(2$ 語적) $\rightarrow 2$ 形” 즉

“ 1 q $-(1$ T적) $\rightarrow(2$ T $\cdot 1$ T $\rightarrow 1$ T $\cdot 2$ T) $-(2$ T적) $\rightarrow 2$ q”

公式(1)로는 :

$\{2(2T-1q)\}$ (*앞 p. 의 (準)異(逆)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의 公式 참조)

公式(2)로는 :

$q(T_2 \leftrightarrow_1 T)$ 은 :

언제나 어휘적(=變形 有적=매듭 有적=核적=T적)인 성격을 띤, 어휘(=表=T)와 형태(=深=q)의 (準)異(逆)方向적 잠재(=T)/실현(=q)적 共存位置 중에서 가장 토대가 되는 순서(1)의 잠재(=T)적 (=並置적) 共存位置이다.

순서(2) ..

첫째 :

(準)異(逆)方向적 變形 1 有(=變)의 公式 :

“ 1 深 $-(1$ 變) $\rightarrow(2$ 表 $\cdot 1$ 表 $\rightarrow 1$ 表 $\cdot 2$ 表) $-(2$ 變) $\rightarrow 2$ 深” 즉

“ 1 形 $-(1$ 語적) $\rightarrow(2$ 語 $\cdot 1$ 語 $\rightarrow 1$ 語 $\cdot 2$ 語) $-(2$ 語적) $\rightarrow 2$ 形” 즉

“ 1 q $-(1$ T적) $\rightarrow(2$ T $\cdot 1$ T $\rightarrow 1$ T $\cdot 2$ T) $-(2$ T적) $\rightarrow 2$ q” 즉

公式(1)로는 :

$1(1T-2q) + 2(2T-1q)$

(*앞 p. 191의 (準)異(逆)方向적 相互拒否적 共存位置의 公式 참조)

公式(2)로는 :

$q(1T \leftrightarrow_2 T)$

둘째 :

(準)異(逆)方向적 變形 2 有(=變)의 公式 :

“ 2 深 $-(2$ 變) $\rightarrow(1$ 表 $\cdot 2$ 表 $\rightarrow 2$ 表 $\cdot 1$ 表) $-(1$ 變) $\rightarrow 1$ 深” 즉

“ 2 形 $-(2$ 語적) $\rightarrow(1$ 語 $\cdot 2$ 語 $\rightarrow 2$ 語 $\cdot 1$ 語) $-(1$ 語적) $\rightarrow 1$ 形” 즉

“ 2 q $-(2$ T적) $\rightarrow(1$ T $\cdot 2$ T $\rightarrow 2$ T $\cdot 1$ T) $-(1$ T적) $\rightarrow 1$ q” 즉

公式(1)로는 :

$2(2T-1q) + 1(1T-2q)$

公式(2)로는 :

$q(2T \leftrightarrow_1 T)$ 은 :

위 순서(1)의 잠재체(=피실현체=T)적 (=並置적) 共存位置은 실현하는, 언제나 어휘적(=變形 有적=매듭 有적=核적=T적) 성격을 띤, 순서(2)의 (準)異方向적 실현(=q)적(=相互拒否적) 共存位置이다.

* 따라서, 이 2)식 表記의 “순서(1)(=피실현체=잠재체) \rightarrow 순서(2)(=실현체)”를, “순서(1)(=실현체) \rightarrow 순서(2)(=피실현적 잠재체)”라고 생각(=主張)하는 것은, 그것이 (準)異(逆)方向적 “순서(1)(=피실현적 잠재체) \rightarrow 순서(2)(=실현체)”의 테두리에서의 (순서)임을 인정하지 않고, 그것을, 가장 分析된 3)식 表記 즉 異(逆)方向적 “순서(1)(=포괄체) \rightarrow 순서(2)(=피포괄체)”라고 생각(=主張=混同)하는 것이 된다.

이러한 混同 내지 主張을, 어휘적 성격을 띤 三分法적 用語(예 : 내제-초원-이중초월 ; “ 1 深 $-(1$ 變)